

# 전북 문화 · 관광산업 육성 가속화

전북특별법 개정안 본격 시행... 지속 가능한 발전 · 새로운 성장 모델 구현

지난해 12월 27일 전북특별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전북의 문화 · 관광 산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전북이 가진 독창적인 문화와 풍부한 자원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며, 문화와 관광이 융합된 새로운 성장 모델을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문화산업진흥지구,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지정에 포함 지역별 특화 전략이다.

각 지구는 전북의 자원을 체계적으로 활용해 관광 산업의 가치 제고와 경제적 시너지 창출을 목표로 삼고 있다.

전북자치도 문화 · 관광 분야 주요 특례로는 △문화산업진흥지구,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국제 케이팝학교 설립, △야간관광산업 육성, △국제회의 산업 육성 특례, △도시관광 조성 특례 등이 있다.

### ▲창의적 문화 생태계 조성의 중심지로 도약

문화산업진흥지구는 전북이 문화와 경제를 융합해 글로벌 문화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고자 하는 비전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전주, 군산, 익산, 남원 등 주요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해 한스타일, 실감 콘텐츠, 근대문화, 공예 등을 특화 자원으로 삼아 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 중이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관련 연구와 조례 제정을 마쳤으며, 올해 상반기 시군별 실행 계획과 지구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부

터 지구 지정 공시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정된 지구에는 기업 유치, 창업 · 입주 지원, 환경 개선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 ▲산림 규제 완화로 동부권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는 전북 동부권의 풍부한 산림 자원을 활용한 지역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

진안, 무주, 장수, 고창, 부안 등 산림이 풍부한 지역을 중심으로 조성될 이 지구는 산림 치유, 레저 스포츠, 모험 관광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특별법의 규제 완화로 리조트, 산림 레포츠 시설, 산장 호텔 등 관광 인프라 조성의 길이 열린다.

이 지구는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동부권 지역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며, 2025년 중반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 ▲고산군도 중심, 해양 역사 · 문화 국제적 거점 조성

전북 서해안권 및 새만금지역은 수중유물이 집중 매장된 해역으로 해양문화유산의 체계적 발굴 · 연구 · 전시 등을 위한 국제교류 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지정에 목표(6월)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구 지정 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

지구 내에는 수중문화유산 발굴을 위한 수중교육훈련, 유물 보존 연구, 전시 및 보존 작업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국립

수중고고학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확보를 준비하고 있다. 나아가 국제교류지구의 활성화를 위해 유네스코 세계해양유산센터 설립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국제케이팝학교 설립 특례를 통해 케이팝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야간관광 산업 육성 특례로 도내 야경 명소를 발굴해 관광객 체류를 유도하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회의산업 육성 특례를 통해 국제적 수준의 회의 환경을 조성하고, 환황해권 국제회의의 거점으로 자리 잡기 위해 2025년 문체부 예비국제회의지구 지정 공모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서관 조성 특례를 활용하여 지역 특성에 맞춘 등록 기준을 개선하며, 이를 통해 지역 문화를 선도하고 교육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 ▲전북 문화와 자연, 세계적 경쟁력 전환의 계기

이정석 전북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각 지구가 활성화되면 전북이 추진 중인 2036년 하계올림픽과 시너지를 이루어, 독창적인 문화 콘텐츠와 인류 자원을 바탕으로, '전북의 문화산업 경쟁력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민들과 함께 전북의 문화적 잠재력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모든 행정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만호 기자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 우석대학교 태권도학과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 K-컬처 프로젝트 '태권유랑단 녹두' 포문

한국소리문화의전당-우석대 태권도학과, 업무협약 체결... 2월 8일 전주서 공연

태권도 특유의 절도있는 군무와 고난이도 격파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공연 '태권유랑단 녹두'가 2월 공연을 앞두고 초석 다지기에 돌입한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대표 서현석)이 우석대학교 태권도학과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우석대학교 태권도학과 상호 간의 문화 발전을 도모하고, 건전한 문화예술을 증진시키기 위해 진행됐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전략적 협업 운영 시스템을 통해 문화관광 상품 육성 및 지역문화 세계화 추진을 위해 힘을 합칠 예정이다.

또한, 두 기관은 7~8일 양일 간 정읍 황도현 전적,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전봉준 유적 등 도내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방문과 동학농민혁

명 강연으로 구성된 역사문화탐방을 진행했다. 출연진들은 역사문화탐방을 통해 공연 '태권유랑단 녹두'에 대한 전문 지식 습득과 창의적 인문 역량 강화에 힘을 예정이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을 기념해 오는 2월 8일 진행될 '태권유랑단 녹두'는 전봉준 녹두장군이 이끌었던 동학농민혁명을 배경으로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목숨 바친 인물들의 진실과 꿈의 참된 의미를 그린 역사 판타지극이다.

이번 공연은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관람은 6세 이상부터 가능하다. 공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누리집(sori21.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 전주국제영화제, 국제경쟁 662편 출품

86개국 참가로 전년 대비 출품국가 증가... 아시아 작품 328편 최다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국제경쟁 부문에 총 662편이 출품됐다.

8일 전주국제영화제(공동집행위원장 민성욱 · 정준호)에 따르면 올해의 경우 자격 기준에 따라 심사 대상 적격 작품 수가 증가했으며, 출품국가도 전년 83개국에서 86개국으로 확대됐다. 대륙별로는 아시아가 328편으로 가장 많았고, 유럽 269편, 북아메리카 110편, 그 뒤로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가 뒤를 이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91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도 65편, 이란 48편 순이다.

장르별로는 극영화가 380편, 다큐멘터리 212편, 애니메이션 5편, 실험영화 50편, 기타 장르 15편이 접수됐다. 특히 다큐멘터리가 2년 연속 200편을 초과했고, 실험영화도 50편 이상 접수

돼 장르적 다양성이 돋보였다. 전진수 프로그래머는 "전체 출품 편수가 지난해에 비해 소폭 감소했지만, 예심을 거쳐야 하는 심사 대상 작품은 오히려 증가했다"며 "특히 아시아 작품, 그중에서도 중국 작품의 출품이 늘어났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영화계의 변화와 위기 속에서도 신인 감독들의 패기 넘치는 작품들이 전주를 통해 소개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 작품을 대상으로 한 한국경쟁, 한국단편경쟁, 비경쟁부문(코리안시네마장편), 지역공모 부문이 현재 출품 진행 중이다. 단편은 17일까지, 장편은 31일까지다.

/장은성 기자

## "겨울방학, 익산 다이노키즈월드로 놀러 오세요"

내달 23일까지 주말 · 공휴일 1시간 연장 운영 · 1+1 행사 진행

익산시가 겨울방학을 맞아 다이노키즈월드를 찾는 방문객을 위해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다. 익산시는 1월 11일부터 2월 23일까지 주말과 공휴일에 다이노키즈월드를 1시간 연장한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1+1 행사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실내놀이체험시설은 레이저 서바이벌과 아트 클라이밍, 스카이트레일 등을 체험할 수 있다. 또한 행사 기간 주말과 공휴일에 다이노키즈

행사 기간 실내놀이체험시설 이용객은 엑스트립 슬라이드 타워의 3가지 시설 중 하나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 가능한 시설은 전망대를 비롯해 원통형 슬라이드를 미끄러져 내려오는 최대 22미터 높이의 드롭형 슬라이드와 나선형 슬라이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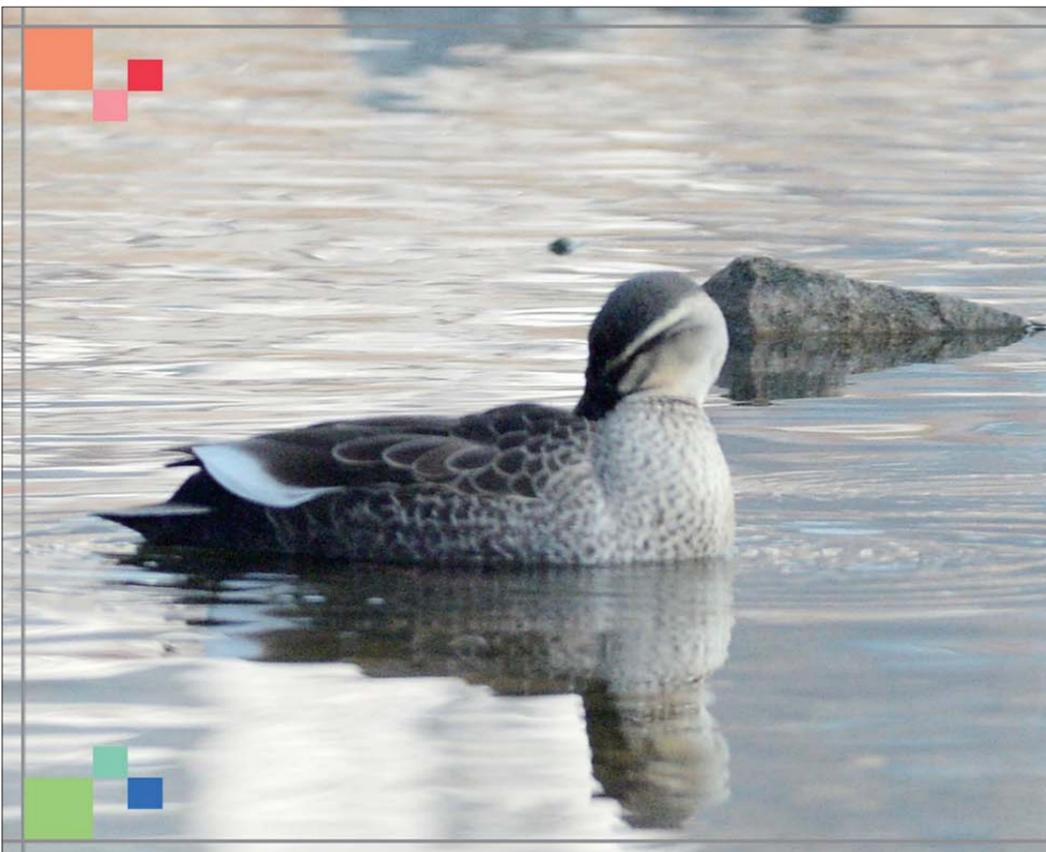
월드를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방문 후기 이벤트도 진행한다. 보석박물관 대표 조형물인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와 꿈꾸는 나무 등에서 사진을 찍은 후 네이버, 다음에 방문자 후기를 작성하면 선착순 10명에게 사은품을 제공한다.

일몰 후에는 다이노키즈월드와 보석박물관 등이 모여 있는 왕궁보석테마관광지에서 야간 경관을 즐길 수 있다. 빛 그리고 음악과 함께 걷다 리는 주제로 야외 조형물에 빛과 음악을 얹어 오후 9시까지 야간경관을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겨울방학 기간에 보석박물관에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다양한 체험과 행사를 즐기고, 아름다운 야간경관을 만끽하며 보석처럼 빛나는 기억을 만드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